

■ 소크라테스의 인간 선언

• “너 자신을 알라.” - “네가 정녕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 결혼에 대하여

“하는 것이 좋다.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 소크라테스의 변론

•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옳은지 그른지,

착한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만 고려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게 될 것인지

죽게 될 것인지를 저울질해야 한다는 것이 그대의 생각이라면,

그대의 제안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주장하면서

소신있게 죽게 된다면

살아서 재판정을 떠나는 배심원들보다

행복하다.”

■ 소크라테스의 죽음

• “참된 철학자는 항상 죽음을 연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고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슬퍼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 혹은 그 둘을 다 사랑하는 자일지 모른다.”

•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 당신들은 살기 위해,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 피타고라스의 규율

-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져라.

많은 단어로 적게 말하지 말고

적은 단어로 많은 것을 말하라.”

- “조화야 말로 참된 미덕이다.”

- “우주의 조화는 수의 비례에 있어!”

-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기술은 길고, 인생은 짧고,

기회는 빨리 지나가고, 경험은 불완전하고,

판단은 어렵다.”

- “의학은 하나의 학문이자 과학이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요 자매다.

-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여,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 알렉산더의 동방 정벌

-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 전역을 통치하는 지배자가 되리라.
-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이다.“

■ 알렉산더와 아펠레스

- ”구두장이여 신발보다 더 높이는 보지말게.“

■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

- ”디오게네스여,
나는 그대의 지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소,
내가 그대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겠소?“

”있습니다.

한쪽으로 조금만 비켜 주십시오.

그래야 햇빛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 ”그대들이 뭐라 말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라면
디오게네스가 되려고 했을 것이다.“

- ”대왕께서는 인도를 정벌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는 편히 쉴 것이요.”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편히 쉬고 있소.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쉴게 아니라 지금 쉬는 건 어떨겠소?“

■ 디오게네스의 가래침

-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가래침을 뱉을 만한 곳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찬 당신의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이는군요.”

■ 디오게네스의 등불

•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이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떨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 “해가 있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네.”

■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능

• “시작이 반이다.”

•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 “어머니가 소년을 남자로 만드는 데 20년이 걸리지만,
여자가 남자를 바보로 만드는 데는 20분도 안 걸린다.”

• “약간의 광기도 없는 위대한 천재란 있을 수 없다.”

• “실패하는 길은 여럿이나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 다모클레스의 칼

• “뭐가 잘못되었나?”

“저 칼……,”

”그게 뭐가 그리 대수로운가?

나는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산다네.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처럼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되고 있지.“

■ 붓다의 큰 울림

•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인지“

(우주만물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 고통도 생각하기 나름이므로 자기 스스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 ”무상한 이 세상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그 여정을 걸어야 한다.“

- ”쾌락만을 좇아 사는자, 자신의 오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며 게으르고 나약한 자, 마왕 마라는 반드시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마치 바람이 나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른다.

사람들은 이 도리를 알지 못해 욕정에 빠져 있다.

나는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에 도달하려고 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옛날 선업을 쌓아서인데 지금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

- ”마왕이여 어서 물러가라.

지상의 모든 것은 내가 구하는 바가 아니니라.“

- ”우리가 여기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아픔의 뿌리이다(生).

태어나서 늙게 되는 것은 또한 아픔이다(老).

살아가면서 병이 들면 아픔을 뼈저리게 깨닫는다(病).

삶을 언젠가는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에 아픔을 깨닫는다(死).

▣ 공자의 생애와 어록

-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를 받쳐 준
나무는 곧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란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한다.”

-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 “앞날을 결정짓고자 하면 옛것을 공부하라.”

- “군자는 두루두루 소통하되 끼리끼리 하지 않고,
소인은 끼리끼리 하되 두루두루 소통하지 않는다.”

- “태산이 무너지는가!
대들보가 부러지는가!
철인은 죽어가는가!

- ”다음에서 네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첫째, 도의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학문을 게을리하는 것.
셋째, 정의를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
넷째, 착하지 않음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를 항상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즉각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 아쇼카 대왕의 정법

- “정법의 승리는 그야말로 무상의 승리다.”

- “나의 영역에서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도
희생제의에서 제물로 바쳐지거나
도살되어서는 안된다.”

- “모든 종교는 그들 모두가

자기 통제와 마음의 순수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도처에 존재해야 한다.”

■ 사기를 남긴 사마천

-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 “성공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실패하기는 너무 쉽다.
기회를 얻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기회를 놓치는 순간은 한순간이다.”

■ 피로스의 승리

- “우리가 로마인들과 싸워 한 번 더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 “피로스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
“피로스는 주사위를 던질 줄은 알았지만
그 주사위를 활용하지는 못했다.”

■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 “유레카” --- 부력의 원리를 아는 순간의 외마디 외침.
- “충분히 긴 지렛대와 단단한 지렛목을 주시오. 그러면 한 손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소.”
- “내가 구의 부피를 구한 방법은 수학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이해하고 발전시킨다면, 지금 또는 앞으로 태어날 수학자들이 내가 찾지 못한 정리들을 발견하는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봐 내 원을 밟지 마라.“

- ”아르키메데스는 백 개의 눈을 가진 거인 푸리아레도스다.“

■ 한니발, 알프스를 넘다

- ”길을 찾을 수 없다면, 길을 만들어라.“

•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만들 것이다.“

• ”눈물 흘릴 눈이 하나뿐이라는 것이 원망스럽다.“

• ”그래서 세 번째인 것이요.
당신에게 이겼으면 나는 첫 번째가 됐을 것이요.“

• ”로마는 카르타고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로마는 한니발을 두려워했을 뿐이다.“

■ 스키피오의 절제

• 로마인들은 졌을 때 주눅들지 않았고,
이겼을 때 우쭐대지 않았다.”

•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화를 자랑했던
제국의 멸망이라는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거라는 비애감이다.”

• “저항이 사라지면,
생명력도 사라진다.”

■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결단

• “주사위는 던져졌다.”

• “여기를 건너면 인간세계의 비참함,
건너지 않으면 우리들의 파멸,
진군하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들을 모욕한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 '루비콘 강을 건너다.'

■ 카이사르의 암살

•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

•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 “브루투스여, 너마저 -----.”

• “로마 시민들이여!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만약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서 카이사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 브루투스도 그분 못지않게
카이사르를 사랑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카이사르를 죽였냐고요?

제가 카이사르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로마를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시해했습니다. -----.”

• “카이사르를 죽인 3월 15일,

이미 나는 나라를 위해 죽었던 사람ियो.

그날 이후 지금까지 자유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것은
새로운 인생을 한 번 더 살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소.”

■ 키케로의 철인정치

• “만약 당신이 혼자 하늘 위로 올라가

아무리 멋진 우주 광경과 아름다운 별을 본다 해도
전혀 기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본 아름다운 광경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은 후에야

비로소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인생에서 우정을 제거해 버림은
이 세계에서 태양을 없애 버림과 같다.
불사의 신들이 인간에게 베풀어 준 것 가운데
이토록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또 있을까?”

• ”이래서야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 마르쿠스 키케로조차도 자유롭게 내 집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 ---- . “

•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죽어 없어지는 것은 오직 육체뿐이니라.
살아 있는 것은 육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다.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지도하듯이
보이지 않는 힘이 육체를 지도하는 것이다.“

▣ 클레오파트라의 향연

•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대지의 표면은 지금과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 ”장군은 각 나라의 소도와 왕과 대륙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아야지
낚싯대는 소용이 없어요.“

• ”클레오파트라의 혀는 마치 각기 다른 음을 내는
여러 개의 악기와도 같았다.“